

7 광주일보  
제17589호 2006년 10월 31일 화요일

## 돌고래 10마리 포획 전어잡이 선장 체포

해경, 4마리는 바다로 돌려보내

여수해양경찰은 30일 포획이 금지된 돌고래를 불법 잡아 몰래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어잡이 어선 T호(9.9t급) 선주 양모(57·여수시 관문동)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께 영광군 법성포 앞바다에서 전어를 잡던 중 돌고래 10마리가 양조망(揚網網) 그물에 걸리자, 바다로 돌려 보내지 않고 몰래 육지로 가져와 판매하려 한 혐의다.

양씨가 붙잡은 돌고래는 일명 '상괘이'로 불리는 길이 1.5~2.0m에 이르는 종류로, 마리당 100여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여수시 중앙동 수산시장과 국동 어항단지에서 돌고래를 팔려다 상인들의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양씨의 트럭에 실린 돌고래 중 6마리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4마리는 탈진한 상태였다.

경찰은 살아있는 돌고래의 피부에 담요를 덮고 바닷물을 뿌리는 등 응급 소생술을 실시한 뒤, 4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현행 수산업법(제 57조 등)은 '돌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양조망(揚網網)=round haul net. 그물로 어군(魚群)을 둘러싸기만 하고 아랫길을 죄지 않는 그물. 전어·멸치·고등어·학공치를 잡는데 사용된다.

## '뉘시용 미끼' 각광... 고소득 새 희망



'진도 갯지렁이 양식' 최영삼 대표가 양식장에서 바위털갯지렁이를 꺼내 보이고 있다. 현재는 50%가량 성장한 상태로 모두 자라면 몸 길이 30~40cm, 둘레 1cm가 된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뉘시용 미끼로 인기가 높은 갯지렁이가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등장했다. 인구 감소와 일손부족 등으로 어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도의 한 어민이 도전 2년 만에 갯지렁이 양식에 성공,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다.

'진도 갯지렁이 양식' 최영삼(39) 대표가 일명 훈무시(本蟲·훈거시)로 불리는 바위털갯지렁이(Marphysa

시 인구가 증가하며 없어서 못 파는 귀한 품이 된 때문이다. 지난 추석에는 kg당 8만5천원까지 값이 치솟을 정도로 '대박'을 터트렸다.

최씨가 키우는 바위털갯지렁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다른 갯지렁이보다 10여cm정도 긴데다(30~40cm), 통통하고, 물고기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다. 체란 후 6개월이면 충분히 성장해 '상품화'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양식 방법이 까다롭지 않아 노령의 어민들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다. 바위털갯지렁이는 비닐하우스에 갯벌 환경과 산소 장치만 해주면, 물을 갈아주고 하루 한 차례 단 백질 사료를 주는 것 외에

별다른 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최씨의 설명이다.

갯지렁이는 한때 일본 등으로 수출될 만큼 효과 상품이었으나 현재는 소비 물량의 80%를 북한·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무분별한 채취와 환경 오염, 늘어나는 뉘시 인구 수요를 맞추지 못해 점점 고갈돼버렸기 때문이다.

최씨는 "아직까지는 양식장이 많지 않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앞으로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음식박물관' 공사 인부 숨겨

지난 29일 오후 2시15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신축 공사장 구조물 일부가 붕괴, 인부 김모(38·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씨가 자재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관련

#### 협력업체 금품받은 소장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 산단 내 G사가 시행 중인 HOU(중질유분해) 공장 증설 공사와 관련,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공사 G건설 현장소장 김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구속된 하청업체 J사 대표 백모(62)씨 등 3~4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원청업체인 G사 관계자들에게도 돈이 일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G사 건설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사직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한 이 모씨가 이번 사건과 깊숙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이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노래방 도우미 6명 첫 입건

### 광주 북부경찰 새 법률 시행...경찰 단속 곳곳 마찰 우려

지난 29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래방 도우미들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손님들과 사전에 말을 맞춰 '회사 동료' 등 손님과 함께 온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향후 신원 확인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30일 노래방에서 돈

을 받고 손님들을 접대한 조모(여·38)씨 등 도우미 6명과 이모(여·42)씨 등 업주 4명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9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광주시 북구 오치동 S노래방 등 두 곳에서 시간당 2만원 받고 손님들을 접대한 혐의다.

업주 이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

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알코올농도 1% 이상의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 단속에 적발된 도우미들은 "도우미가 아니라 함께 온 회사 동료"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등 반발했으나, 경찰이 업주와 대질 심문을 벌이자 혐의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우미들이 '평소 아는 사이'라며 신분을 위장해 혐의를 입

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음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법 개발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도우미를 고을 불법 노래방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29일부터 시행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등)은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됐을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조폭 4명이 여고생 1명 집단 폭행

○조폭폭력배 4명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달미.

○30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속칭 '무등산과' 행동대원 김모(28·광주시 서구 농성동)씨 등 4명은 지난 5월13일 새벽 4시40분께 동구 불로동 주택가에서 D고 3년 정모(18)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물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것.

○정양은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광주 ↔ 방콕 직항**  
방콕·파타야·김보디아  
₩ 670,000 ~  
GOLF ₩ 850,000 ~

**광주 ↔ 홍콩 직항**  
홍콩·마카오·심천  
₩ 650,000 ~

**광주 ↔ 시엠립 직항**  
시엠립·방콕·김보디아  
₩ 820,000 ~

전세기 사무실 TEL: 062-226-6070